

독자 기고

작은 부주의가 주는 '나비효과'



한선근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미국의 기상학자이자 수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연구한 카오스 이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나비효과라는 말이다. 이 나비효과라는 뜻을 보면 "북경의 한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 미국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 말을 좀 더 일관되게 따져보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건,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미래나 다른 장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증가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번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최근 소방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거

울철(11월~2월)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강조의 달'로 정해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불조심 홍보 및 각종 경연대회, 119안전체험장 운영, 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등대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해 다양한 안전시책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화재는 작고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시민 개개인이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여기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출 시나 취침 시 전기기구와 가스불이 꺼졌는지 재확인한다. △어린이에게 불조심 교육을 시키고 인화성 라이터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콘센트 위에 먼지가 쌓였는지,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기스토브는 절대 문어발식 배열을 금하고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화재예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안일한 행동으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 투고

우리의 관심이 아동학대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도 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범죄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많은 편이다. 최근에도 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가해자 81.8%가 친부모에 의해서 걸로 드러나

지 않은 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발생 유형도 복합적 학대가 41.4%, 방임 33.3%, 정서적 학대 13.8%, 신체적 학대 6.9%, 성적학대는 4.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징조는 발견할 수 있다.

주변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위축된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등 징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에 관련된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주변에서 어떤 좋은 제도가 있고, 또한 앞으로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이보다 좋은 것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두고 지나친 순간마다 사랑받을 수도 있었던 아이들!! 외면하지 말고 곧바로 112 신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서 UN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고, 노년층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점점 늘어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 학대의 발생현황을 보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건수가 무려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84.4%가 아들, 딸, 배우자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학대 행위자가 친족일 경우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가 인연에 인연은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방비로 피해 노인이 방치되고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 신고가 없는 근절되기 어렵다.

혹여 주변인이 피해사실을 눈치 챌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이상을 잃은 것뿐이예요!", "나만 입을 다물면 모두가 괜찮다!" 등 자식,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그 사실을 숨기며, 잘못된 희생정신으로 노인 자신과 학대 가해자 또는 주변인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학대 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쇠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 노인 학대 신고는 24시간 1577-1389, 112로 하면 된다.

노인 학대 신고, 잠깐이 아니라 도움이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은주 경사

특별 기고

이일경백(以一警百), 살일경백(殺一儆百)

하늘을 다스려 백을 다스린다.

'한서' '윤용귀전(尹翁歸傳)'에 나오는 말이다. 용귀(翁歸)는 동해지방을 잘 다스렸다. 그가 취한 방법은 '이일경백'으로 서 관리와 백성이 모두 마음으로 납득하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일경백'은 장수가 선악을 분명히 가리고 상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하들에게 경고를 내리라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만 의존해 군기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다. 군기는 군대 응집력의 표현이다.

군기가 없으면 어떤 좋은 모략도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일경백'은 확실히 군을 다스리고 승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군기를 위반한 자는 법으로 다스려 '이일경백'의 효과를 충분히 살렸다.

오나라 왕이 서쪽으로 강국 초나라를 쳐 부수고 북으로 제·진(晉)을 제압한 것이나 제나라 경공이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극적으로 진(晉)·연을 제압하여 국도를 회복한 것은 이 두 군사 전문가가 군을 엄격하게 다스린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일경백'은 일종의 수단이자 군을 다스리는 계략이기도 하다.

동서고금을 통해 성공한 군사가는 모두가 이 계략의 작용을 중시했다. 고대 군사들은 상부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로,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큰 상으로, 지위가 높은 자의 위법에는 군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 모든 병사들에게 규율 앞에서는 지위 고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자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량 언론인·중국 고전 연구가

社說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에너지 메카' 꿈꾼다

광주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됐다. 반갑고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광주와 전남도가 공동 신청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에너지와 타 산업 간 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단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지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이번 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 근거지로 지역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단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 전남 일원 18.92㎢에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에너지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성과는 두 시·도가 미래 먹거리 성계획안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에너지와 타 산업 간 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기반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연구개발 인프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단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지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이번 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 근거지로 지역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단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 전남 일원 18.92㎢에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술혁신 역량을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색빌딩 5층

회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중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위해 주시길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